환경부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1. 27.(월) 11:30 배포 2023. 11. 27.(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만들자… 차량 업계 기반 마련 한뜻

-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 이행 선포식 동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4회 화학안전주간을 맞아 11월 27일 서울 드래곤시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선포식에는 현대차·기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선포식에 참여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및 기업과 기관 대표들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자동차편'의 주요 내용인 △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하는 자동차에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 화학물질 사용 저감, △ 항균 등 과대광고의 근절, △ 자발적 규제와 지속 소통·상호협력에 대한 이행 등의 약속을 선언할 예정이다.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서 자동차편'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살생물처리된 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가 자동차 업계에도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전에 마련한 것이다.

* 살생물처리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해야하며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의무가 적용('27년 1월 1일 부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선포식에서 “앞으로 자동차의 환경관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안전성까지 고려한 사전예방적 관리로 범위 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자동차 사용 환경의 안전성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분야에 처음으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자동차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사업자정례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 밀접형 품목 중심으로 유통망 내 자율관리 체계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에서 자동차·가전·유통 등 13개 산업 분야·146개 기업이 소비자 안전 이슈의 선제적 대응과 위해예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구축·운영

붙임 1. 이행 선포식 개요.
2. 이행 선포문. 끝.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권병철 (044-201-6805)
		담당자	연구관	김혜진 (044-201-6804)
			주무관	정창영 (044-201-6827)
담당 부서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책임자	팀 장	김인숙 (043-880-5421)
		담당자	과 장	주철진 (043-880-54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이행 선포식 개요**

□ 배경 및 목적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물질·제품 뿐 아니라 살생물처리제품(이하 '처리제품')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 주된 목적 외에 제품 보존, 향균 등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처리한 제품으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사용,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필요

○ 자동차는 항균처리된 핸들, 시트, 필터 등 다양한 살생물처리제품으로 구성, 제조·공급망내 등 관계자별 살생물제 관리제도의 이해 및 이행 필요

○ 환경부·한국소비자원·국내 완성차 5개사*·자동차협회가 민·관협력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자동차편)」 최초 마련('23.11)**

* 현대차·기아,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한국지엠

** 규제 이해관계자별(자동차·부품제조·공급사 등). 제품유형별, 이행시기별 의무·책임 규정

□ 행사 개요

○ (일시) '23.11.27.(월) 10:10~12:00 ※ 제4회 화학안전주간 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

○ (장소) 서울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3층 한라홀(용산역)

○ (참석) 환경부 장관,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5개 자동차사(임원진 등)

□ 선포 및 서명식 내용

○ (이행선포) 살생물제 사용저감과 건강한 자동차 환경마련을 위한 이행 선포문* 낭독

- ① 자동차 및 자동차 공급망내에는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② 화학물질 사용 저감, ③ 입증되지 않은 항균력 등 과대광고 근절, ④ 자발적 규제이행을 위한 지속 소통·상호협력 등

○ (서명식) 자동차 살생물제 안전관리 이행 선포에 대해 정부-산업계가 함께 약속하는 서명식 진행

붙임 2 이행 선포문

자동차업계는 환경을 기업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여 전통적인 유해배출가스 저감이나 연비 개선에서 나아가, 자동차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 완성차 생산까지의 공급망 내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 사용, 화학물질 사용 저감과 같은 자동차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안전도를 다각도로 강화한 자동차 환경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자동차업계는 보다 안전한 소비자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협력하여 작성한 '살생물제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완성차업계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살생물제 관리제도 및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소비자의 안전 및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동시에, 지속적인 협력사 교육 및 가이드라인 공유 등을 통해 모든 협력사 및 공급망에서도 제도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자동차업계는 정부와의 협력하에 자동차 환경제도개선과 새로운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적용하고 소비자안전·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적극 소통한다.

하나, 자동차업계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자발적인 규제이행을 위해 화학물질 현안 및 정책연구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부·한국소비자원과 상호협력한다.

환경부	장관	한 화 진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 수 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강 남 훈	
현대차·기아	대표	김 용 화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대표	브라이언맥머레이	
르노코리아자동차	대표	스테판드블레즈	
KG모빌리티	대표	정 용 원	